

올 가을의 시작은 보성... '제16회 보성전어축제' 개막



전어 잡기·전어 굽기 체험 등 놀거리·이색 프로그램 다채
구이·회무침 등 먹거리 푸짐
"방문객 소중한 추억 되길"

보성군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전어축제'를 연다.

군은 피서철 보성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전어축제는 회전면민회가 주최하고 보성 전어축제추진위가 주관해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먹거리다. 이날 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에 소금을 뿌려 구운 전어구이, 새콤달콤 무쳐 먹는 전어회 무침,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고소한 전어튀김까지 맛볼 수 있다.

16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울포솔밭해수욕장 낭만의 거리 부스에서 전어 요리 무료 시식회와 가수 진국아, 민지, 김수련, 조하도의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 한마당이 진행된다.

이튿날인 17일 9시30분부터 11시까지는 직접 싱싱한 활어를 잡아보는 전어잡기 체험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희망자는 참가비 1만원(초등학생 이하 무료)을 내고 배부된 그물을 가지고 참여하면 된다. 전어잡기 체험에 참가자는 전어 굽기 체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이용 집기와 도구를 배부할 방침이다.

이날 이후 17시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초청 가수 하숙자, 정태형, 문서희의 축하공연과 전어축제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노래자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축제 하루 전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울포 낭만의 거리 내에 농특산

물 전시 및 판매 부스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축제 기간동안 보건소 의료지원반, 여수 해경 안전요원, 보성 소방서 응급 구조대와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 안심하고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보성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소중한 추억,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의 9미로 알려진 '전어'는 생선 중에는 저칼로리로 불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체중조절이나 성인병 예방과 신진대사에 좋고 영양의 균형을 맞출 무기질, 비타민도 풍부하다. 특히, 전어의 잔가시는 우유의 2배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다. **송민섭 기자**

통합의료 서비스모델 발굴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과 노인성 질환의 통합의료 서비스모델 구축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의 마지막 연차로, 개발한 통합의료 서비스모델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5~7일, 장흥통합의료병원 이정한 병원장과 통합의료 연구 지원사업 책임자 강형원 교수 외 연구원은 태국에서 열린 전통의학 컨퍼런스(Siriraj Traditional Medicine Conference) 2024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는 브라질, 가나, 캐나다, 태국 등 10여 개 국가의 통합의학 전문가가 참석하여 통합의학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근거 기반 학술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대회 참여 후, 이정한 병원장과 강형원 교수는 태국 마히돌대학교가 운영하는 전통의학 센터를 방문하여 태국의 전통 의학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개발된 통합의료 서비스모델을 수정 및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과 뇌파 측정을 통한 통합의료의 객관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장흥-김전환 기자

'도서관에서 다다다 놀자' 순천시, 다문화 강좌 운영

순천시가 다문화 이해와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다다다(다문화로 다같이 다양하게) 놀자~!'를 오는 11월까지 삼산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속 세계여행 △결혼이주여성의 다다다 만들기 △다문화 그림책 깊이 읽기 △다문화 작가와의 만남이 포함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강사로 참여하는 '도서관 속 세계여행'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강사진의 고향인 태국, 중국, 일본의 전통놀이, 음식, 의상 등을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다다다 만들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여 가방, 찻상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9월부터 시작하는 '다문화 그림책 깊이읽기'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등장인물과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으며, 10월에는 <한국사에서 찾은 다문화 이야기>의 저자 강미숙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역사 속 흥미로운 다문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다문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삼산도서관(061-749-6970)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어촌계 어업인들이 어촌계 해역에 가리맛조개 종패를 살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참꼬막 등 종패 살포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순천시는 수산자원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 수산종패 살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환경 변화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어촌계 어장에 수산종패를 살포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3000만

원을 증액해 총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 해역별 특성과 적합한 살포시기를 고려하여 가리맛조개와 참꼬막 종패 살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내 11개 어촌계 중 8개소에 순천만의 특산품인 가리맛조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제25호 등록, 2018년) 전장 1cm 이상의 종패 약 143만 마리를 살포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매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참꼬막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내 어촌계 3개소에 참꼬막 종패를 매입하여 살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어촌계와 어업인들은 살포해역에 대해 일정 기간 포획금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으며, 시에서도 종패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히 나설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2024년 을지연습... '비상 대비 태세 확립'

광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소관 국장(소장) 및 부서장, 유관기관(7391부대1대대,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2024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연습 기간 중 유관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도상 연습, 전시(예산) 현안 과제 토의, 유관

기관 합동 테러 대응 실제 훈련 순으로 진행하며 4일째인 8월 22일 전 국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및 강평 보고를 끝으로 연습을 종료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 위기관리 연습 기간은 '전쟁 이전 위기대응'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시전환' 상황 운영으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전시 이동 제한 상황을 가정해 국무회의(II) 등 주요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며 시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영상 또는 서면 회의로 진행한다. 광양시는 이번 훈련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기관별 연습 준비사항

및 관련 협조(홍보)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달라진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위기관리연습 기간(8월13일-8월14일) 중 공무원 불시 비상 소집이 예정되어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광양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있어 유관 기관 간 굳건한 비상 대비 공조 체제 확립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하다"라며 "민, 관, 군, 경이 단합해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시행해 봄으로써 지역방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내실 있는 연습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자활근로사업 추진 '우수' 전남도 지도·점검 평가

고흥군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활발히 운영되는 누룽지·조미김 제조 판매, 새하얀클린(청소) 등 8개 자활근로 사업단이 전남도에서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위탁 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자활근로 사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 신규 참여자들을 위한 게이트웨이 교육(기초교육) 활성화가 주요 수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오근이 고흥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의 가치는 저소득층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자활근로 사업단의 발전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명민 고흥군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실현된다"며 "고흥군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흥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저소득층 자활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반려식물 판매와 음료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식물카페 '플랜:페'를 8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